

역사적 변화의 기술과 설명에 있어서의 몇 문제

—서평: 이현규(1995),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 영남대학교출판부, 신국판, 453면

박재연*

1.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그 변화의 양상이 흥미로운 것은, 언어의 변화야말로 언어학적인 '설명'의 대상으로 적당하기 때문인 것 같다. 비유컨대, 어떤 나무가 겉으로 변화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것은 그 나무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기술이 기가 쉽지, 좀처럼 어떤 설명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변화'의 단계에 대해서는, 단풍이 드는 이유라든가 잎이 떨어지는 작용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줄 수 있게 된다. 언어를 바라볼 때에도, 공시적인 연구에서보다 역사적인 연구에서, 현상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쉽게 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故 이현규 교수의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는 연구의 대상이 '국어의 변화'였다는 점에서 저자에게나 독자에게나 많은 흥미를 던져 주는(혹은 던져 주었

* 석사과정

을)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가 “오래 전부터 기획하여 써온 국어 변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한 제목 아래 동여서 묶은” 논문집인 이 책은, 저자가 불인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라는 야심찬 제목 그대로, 국어의 역사적 변화의 원리를 해명해 보려는 업적이다. 음운론·표기법에서 형태론, 나아가 통사론에 이르는 저자의 넓은 관심의 폭을 보여 주는 이 책은 총 3편 15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론

제1장 언어 변화의 요인과 제이론

제2편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

제2장 음운 소실과 형태 변화

제3장 동음 형태 충돌과 형태 변화

제4장 축약과 형태 변화

제5장 표기와 형태 변화

제6장 전위와 형태 변화

제7장 유추 작용과 형태 변화

제8장 차용과 형태 변화

제3편 국어 형태 변화의 제양상

제9장 ‘사이시옷’의 기능 변화

제10장 접미사 {-돕다}의 변화

제11장 접미사 {-깝다}의 변화

제12장 명사형 어미 {-기}의 변화

제13장 선어말 어미 {-습-}의 변화

제14장 의문법의 변화

제15장 단어의 범주 변화

제1편 총론은 후속되는 논문의 성격을 어학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저자의 배려로서, 언어 변화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서술한 부분이다. 따라

서 제2편과 제3편이 이 책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데, 제2편은 일반언어학적인 변화의 원리에 비추어 국어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탐구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제3편은 국어의 자료를 중심으로 개별 형태 혹은 구성의 변화의 양상에 천착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2편과 제3편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접근한 연구인 것이다. 부분부분 중복되는 논의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본고는 이 책에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을 각 장 별로 요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되, 겹치는 논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묶어 언급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예컨대 서술형 종결어미 '-ㄴ다'와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에 관하여서는 제2장과 제3장 그리고 제14장에 걸쳐 논의 되고 있는데, 이는 제2장을 논하는 자리에서 묶어 다루기로 한다.

2.

2.1.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제1장은 후속되는 논문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언어의 변화는 음운 변화, 문법 변화, 어휘 변화로 나뉘고, 음운 변화는 다시, 음운의 소멸에 의한 변화(Δ , ㅂ, ㅋ 등의 소멸)와 여러 가지 음운 현상에 의한 변화(구개음화, 동음 생략, 자음 접변, 이화, 음운 도치 전설모음화, 후설모음화, 간음화, 모음 충돌 회피, 모음 교체 등)로 나뉜다. 문법 변화는 형태 축약, 음운 소실, 표기, 전위, 동음 형태 충돌, 유추 등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며, 어휘 변화는 한 언어의 내적 자원에 의한 것과 차용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언어 변화의 요인과 언어 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소개도 덧붙이고 있다.

2.2.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제2장에서는 음운 소실이 국어의 형태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로 '음의 소실에 의한 형태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접미사 '-이/의'와 조사 '이/의', 종결어미 '-느다', 불완전 명사 '드'와 어미 '드'의 변화를 관심 대상으로 한다. 접미사 '-이/의', 조사 '이/

의'는 '、'의 소실로 각각 그 대립 체계가 무너져 '(-)의'로 통일되고, 종결어미 '-느다' 역시 '、'의 소실로 '-느다'로 변화하며, 불완전명사 혹은 어미로 쓰이던 '드' 역시 '、'의 소실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 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종결어미 '-느다'¹⁾의 문제를 보자. 저자는 종결어미 '-느다'가 '-느다'로 변화한 것을 '、'의 소실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미묘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 국어의 역사에서 '、'의 소실이란 '、'의 비음운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 국어의 음운 체계 내에서 독자적인 음소의 지위를 잃게 됨을 뜻한다. 그 결과 이전 시기의 어사들이 가진 '、'는 체계 내의 다른 음소로 합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²⁾ 그런데 저자의, “‘느’의 ‘、’가 소멸되고 ‘느’은 앞 형태의 끝소리로 실현”(59면)된다는 언급은 혹시 저자가 '、'의 소실을 문법 형태에서의 탈락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현재시제의 서술형 '-느다'가 피포유문에서부터 '-느다'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세력을 넓혀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국어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김완진(1975)에서처럼 “피포유문의 문말은 절대 문말에 비하여 약화 또는 축약에 好適한 환경 정도의 추측은 가능할지언정, 이를 '、'의 소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일반적인 공식을 따르면, '-느다'는 '-느다'로 변화되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의문형 어미 '-느다'가 쇠퇴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제2, 3, 14장). 즉, 서술형 종결어미가 '-느다' > '-느다'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기준에 존재하던 과거 의문형인 '-느다'와 동음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과거 의문형에는 과거시제를 표시하는 '-았/었-'이 더 붙어 시제를 표시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 형태는 그 기능을 '-뇨, -냐' 등에 물려 주고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문형의 '-느다'와 서술형의 '-느다'가 동음 형태 충돌을 일으켜 의문형의 '-느-

1) 보다 정확히 말하면, 중세 국어에서 '-느-'는 선어말어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느다'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선어말어미+종결어미'의 구조체이다. 여기서는 저자의 표현을 벗었을 뿐이다.

2) '、'의 제1단계 소실이 17세기에 비어두에서 '、>--'로, 제2단계 소실이 18세기에 어두에서 '、>ㅏ'로 변화하는 공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이기문(1972) 참조.

다가 밀려나게 된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지만, 동음 형태 충돌로 인하여 과거시제 표시를 ‘-았/엇-’으로 하기 시작하였다는 논리에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 과거시제의 ‘-았/엇-’이 시제 형태소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가 우선 걸려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ㄴ다’형이 ‘-았/엇-’ + ‘-는다’ 구조로 대체되고 있음이 현저”(94면)하다고 말하는 저자의 설명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일단 ‘-엇는다’ 류의 어형이 ‘-엇- + -는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저자의 분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고심거리다. 저자는 ‘다’ 의문법 체계에서 시제에 따른 ‘-ㄴ다/는다/ㄹ다’의 대립체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실 ‘-는다’의 ‘-느-’가 선어말어미로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바가 없다. 즉 ‘-엇는다’의 ‘-느-’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표면적인 어형만 놓고 보자면, 그것을 분석하든 분석하지 않든 간에, 저자의 체계 안에서 ‘-는다’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엄연히 [+현재]이다. 그런데 과거 의문형인 ‘-ㄴ다’가 현재 서술형과의 동음 충돌을 경험한다고 하여, ‘-았/엇-’을 선행시키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시제와 과거시제가 그대로 충돌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저자의 의견을 충실히 따라가 보자. ‘-ㄴ다’가 과거시제 의문형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았/엇-’이 개입되는 것을 상정한다면 그것은 ‘-았/엇-+-ㄴ다’가 된다. 물론 이러한 ‘ㅅㄴㄷ’의 연쇄는 국어에서 있을 수 없는 음소 배열이므로 어느 한 자음은 탈락하게 된다. 즉 ‘-았다’, ‘-안다’ 등의 어형이 출현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느-’의 존재는 어느 쪽으로든 합리화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았/엇-’이 ‘-어 잇-’, ‘-어 이시-’ 등의 통사적 구성에서 왔으며 ‘-엇는다’의 ‘-느-’는 동사 ‘잇-/이시-’가 가지는 현재시제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 관찰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이전 시기의 ‘-ㄴ다’ 위치에 ‘-엇는다’ 류의 어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어 잇-’의 통사적 구성이 상적인 의미와 더불어 시제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과 맞물리는 것이지, 결코 ‘-ㄴ다’가 가졌던 과거 의문의 기능 쇠퇴와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관심을 옮겨 ‘드’에 관한 논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³⁾ 저자는 불완전 명사 ‘돌’이 후대에 없어지면서 그 기능을 ‘줄’에게 넘겨 주었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돌’이 ‘.’의 소멸에 의하여 형태가 소멸”(68면)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불완전명사 ‘돈’은 ‘것’으로, ‘디’는 전후의 다른 요소와 합쳐져 하나의 어미로 쓰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미로 쓰인 ‘돌, 돈, 디’에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베푸는데, ‘돌, 돈’은 ‘디’에게 그 기능을 넘겨 주며, ‘디’는 다시 ‘기’에게 그 기능을 넘겨 주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으’음과 관계된 형태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문법 형태의 단순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74면)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저자가 앞의 ‘-느다’의 변화를 다룰 때와 유사한 종류의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저자는 음운 체계 내에서의 한 음소의 소실을 두고 그 음소가 포함된 어사 자체의 소멸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돌’이 ‘.’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 소실과 함께 없어져야 하는 운명이라면, 본래 ‘.’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어사들이 지금까지도 사라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저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드숨, ㄉ술, ㅎ-’, ‘긁-’ 등의 수많은 어휘적 단어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떠올릴 수 있으며, 조사 ‘온/은’의 대립이 사라져 ‘은’으로 통일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은’으로 합류되었다는 설명을 주게 되는 것이다.⁴⁾

3)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자가 범하고 있는 혼동을 먼저 지적하기로 한다. 저자는 제2장 제4절의 제목을 “불완전명사 ‘드’와 어미 ‘드’”로 달아 두고 있어서 ‘드’를 불완전명사나 어미로 파악하고 있는 듯 보인다가, 막상 본문과 결론에서는 “불완전명사 ‘돌, 돈, 디’”, “어미 ‘돌, 돈, 디’”라고 함으로써 무엇을 불완전명사 혹은 어미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필자의 의견을 말한다면, 명사구 보문 구성을 이룸으로써 불완전명사의 기능을 간직하고 있거나,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구가 됨으로써 명사형 어미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면, ‘돌, 돈, 디’에 통합된 ‘을, 온, 이’는 각각 대격조사, (소위) 주체격조사, 주격조사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불완전명사적인 쓰임의 경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돌, 돈, 디’가 하나의 단위가 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ㄴ/근돌/돈/디’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어미화되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중간 단계의 불완전명사 ‘돌, 돈, 디’를 상정하여야 할 것인가의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로 한다.

4) 이러한 근본적인 저자의 오류 이외에도 우리는 저자가 ‘드’ 관련 구성의 다양한 모습을 철

또 한 가지, 저자는 '-디'와 '-기'가 혼용되고 있다든가, 초간본의 '-디'가 중간 본에서는 '-기'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들어 양자가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이며(72면), '-디>-기'의 형태적 교체를 보여 주고 있다(73면)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디>-기의 음운론적인 변화를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 이거니와, 단지 가능이 같음을 두고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도 않은 두 요소가 이 형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여겨진다. 여기에 대하여 저자가 엄밀히 정의된 과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우려인데, 후속되는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디>-기'의 교체를 접속어미 '-디'와의 동음 형태 충돌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가 새로 출현한 형태도 아니요, 동음 형태 충돌 현상에 의해 단지 '-디'의 역할을 떠맡은 형태에 불과하다면, 여기서 이형태 관계를 논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더욱이 명사형 어미 '-기'의 변화를 논하는 제12장에서는 15세기에 '-디'는 명사형 어미요, '-기'는 파생접사에 가까운 형태였는데, 후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성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디>-기'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3. 제3장은 동음 형태 충들이 국어 형태 변화에 끼친 영향에 관한 글이다. 명사형 어미 '-(으)ㅁ'⁵⁾과 접미사 '-(으)ㅁ', 명사형 어미 '-디'와 접속어미 '-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한 의문형 종결어미 '-ㄴ다'와 서술형 종결어미 '-ㄴ다'를 관심 대상으로 한다.

저히 짚어 내지 못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저자는 '돌'이 사용된 구조으로 그것이 불완전명사로 기능하는 경우[63면 (31ㄱ)]이 良藥이 色香이 다 爵호를 보고 곧 머그니 痘이 다 爵코(月釋 17:19)]와 명사형 어미로 기능하는 경우[65면 (37ㄱ) 놈 더브리 드토돌 아니 ㅎ오이다(釋 11:34)]만을 들어 놓고 있으나, “아바님 술호신돌 淨居天은 틀 달아 太子시몸에 袷裳 니피수봉니(月曲 56)”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완전명사로도 명사형 어미로도 파악되기 어려운 다른 종류의 예가 중세국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月印千江之曲》의 '-ㄴ돌'은 기존의 논의에서 '양보'의 접속어미로 다루어졌다. 자세한 것은 정재영(1996)을 참조할 수 있다.

5) 명사형어미는 언제나 선어말어미 '-오/우'와 함께 '-음/음' 형태로 나타나므로 팔호 안의 매개 모음 표시인 '으'는 사실상 불필요하다. 여기서는 저자의 표현을 따랐다.

둘째, 셋째 문제에 대하여서는 2.2.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명사형 어미 ‘-음’과 전성명사화 접미사 ‘-음’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 약간의 논평을 하기로 한다. 저자의 주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명사형 어미 ‘-(으)ㅁ’과 접미사 ‘-(으)ㅁ’은 본래 동음 관계에 있었지만 굴절과 파생이라는 다른 역할을 해 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각기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선어말어미 ‘-오/우’가 소멸하면서, 둘의 분간이 어려워지자, 파생접사에서 생산성을 획득한 ‘-기’가 명사형 어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으나 그 논의의 전개 방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느낀다. 저자는 명사형을 만들 때 ‘-(으)ㅁ’이 항상 선어말어미 ‘-오/우’를 선행시켜 실질적으로는 ‘-음/움’의 형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어말어미 ‘-오/우’ + ‘(으)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어말어미 ‘-오/우’의 소멸 이전 단계에는 이들이 “간접충돌”(98면)하는 상황이었다는 어색한 설명을 해야 했는데, 막상 ‘-오/우’의 소멸 이후의 단계에 대하여서는 “‘-오/우’의 소멸에 따라 양자가 동음 형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일관되지 못한 언급을 하고 말았다. 애시당초 명사형 어미의 형태를 ‘-음/움’으로 잡았더라면, 동음 형태 충돌에 의한 ‘-기’로의 대체 현상을 보다 간명하게 기술할 수 있었을 것이다.

2.4. 제4장은 ‘-아 잇-’과 ‘-게 흐앗-’의 문법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국어의 문법사적 사실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논의의 규모를 생각하면, 본고가 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평가는 힘들다. 그러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하여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문제의 구성이 하나의 형태소로 문법화된 원인을 ‘형태론적인 축약’으로 잡고 있는 듯이 보인다. “결국 축약으로 인하여 어떻게 형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 만들어진 형태는 또 어떤 과정으로 의미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문법 요소로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펴……”(102면)와 같은 언급은 이러한 저자의 관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아 잇-’과 ‘-앳-’, ‘-엇-’이 형태면에서뿐 아니라 의미면에서도 구별되며, 형태상의 추이가 의미상의 추이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과도적 구성·형태들이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논의의 소지가 된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지, 축약으로 인한 형태 변화가 의미의 변화를 놓았다는 인과관계는 잘못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ㄹ 것이야’와 ‘-ㄹ 거야’의 차이⁶⁾를 들어, “통사론적인 축약으로 이루어진 새 형태는 본 형태와의 사이에서 의미 변화를 가져온다”(106면)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올바른 기술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공시적인 관점에서의 의미 차이는 이런 식으로 기술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변화를 기술하는 자리에서는, ‘-ㄹ 것이야’의 특수한 용법⁷⁾이 ‘-ㄹ 거야’(사실은 ‘-ㄹ게’)로 문법화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 잇-’ 등의 변화에 있어서도, 통사적 구성이 일정한 상적 의미로 쓰이게 됨으로써 그 특수한 용법이 형태론적인 축약을 겪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즉, ‘축약’은 ‘형태 변화’의 원리는 될 수 있어도 문법화의 원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덧붙여, ‘-게 헛잇’이 어떻게 하여 [추정]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명쾌한 해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게’는 추정과 관련되고, ‘헛-’는 사동과 관련되는데, ‘겟’이 되면서 사동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식의 저자의 설명도 보다 정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동]은 ‘헛-’의 의미가 아니라 ‘-게 헛-’ 구성 전체의 의미이며, ‘겟’에 숨어 있는 ‘-아 잇-’의 역할도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⁸⁾

2.5. 제5장은 표기법의 변천이 국어의 형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6) 저자는 여기서 안명철(1990)의 논의를 인용했는데, 인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저자는 ‘-ㄹ 것이야’는 ‘미래’와 ‘약속’을 뜻하는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고, ‘-ㄹ 거야’는 ‘약속’을 뜻하는 용법만을 가지고 있다고 인용하였으나 안명철(1990)에서 ‘약속’만을 나타낸다고 언급된 것은 ‘-ㄹ게’이다(사실 ‘-ㄹ 거야’는 ‘미래’의 용법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ㄹ게’가 ‘-ㄹ 거야’의 축약형(혹은 융합형)이라는 안명철(1990)의 주장도 보다 세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같은 점이 우리의 논의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7) ‘-ㄹ게’는 1인칭 주어, 평서문, 현재시제일 때에만 사용되는 체약이 있다. 안명철(1990) 참조.

8) ‘겟’에 포함된 ‘-아 잇-’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 주장은 임동훈(1996: 121~12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 잇-’이 가진 광동적 기능을 인정한다면, 사동(즉 타동)의 ‘-게 헛-’는 ‘-아 잇-’과 만나 ‘-게 되-’의 의미 해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밝힌 글이다. 이전 시기의 8종성법이 7종성법으로 변화하면서 ‘ㄷ’과 ‘ㅅ’이 표기에 있어 혼동되던 현상이, 어사의 발음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원래 ‘ㄷ’ 종성을 가지던 것이 ‘ㅅ’ 종성을 가지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근대국어로 넘어 오면서 분철 표기의 짹이 보일 때 종성에 ‘ㅊ, ㅈ’을 가지는 어사들이 ‘ㅅ’을 가지는 것으로 표기되어 결국 ‘꽃, 빛’ 등이 ‘ㅅ’ 받침을 가진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이 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러한 주장이 피상적인 관찰에서 온 것임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중세국어에서 ‘간(笠), 곧(處), 몽(釘)’ 등 ‘ㄷ’ 종성을 갖던 체언들이 ‘ㅅ’ 종성을 갖는 ‘갓, 곳, 못’ 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간극 동화 등의 개념에 의한 음운론적인 설명(대표적으로는 곽충구 1984)에서부터, 규칙 전도(rule inversion)에 의한 유추적 변화라는 설명(고광모 1989)까지 매우 다양하다. 표기법에 의한 것이라는 저자의 설명도 여기에 추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저자의 설명을 다음에 옮겨 온다.

16세기에 이르러 종성에서의 ㅅ/s/이 소멸됨으로써 8종성이 7종성으로 정리되는 단계에서, 표기 자소도 7개로 정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ㅅ/s/이 소멸되었을 때 ㅅ을 ■ 내버리고 여타의 7개 자음이 선택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ㄷ/t/을 ■ 버리고 ‘ㅅ’을 ‘ㄷ’ 대신으로 표기하게 된다. ‘ㅅ’은 종성에서는 /t/를 지시하고 초성에서는 /s/를 지시하는 결과가 되어 한 개의 자소에 두 개의 음운 지시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반 언중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ㅅ을 /s/으로만 인식하려고 한다. 그 결과 ‘번, 븐’은 ‘벗, 봇’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초기의 ‘벗, 봇’의 ‘ㅅ’은 /t/으로 실현되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s/으로 인식하려고 하고, 마침내 그러한 변화가 18세기에 일어난다. 점차 확대되어서 현대에서는 ‘벗, 봇’을 /t/으로 읽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152면)

이상과 같은 저자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저자는 받침에 ‘ㄷ’을 쓰지 않게 되면서 저자가 예로 든 ‘벗, 봇’ 등의 체언뿐만 아니라 ‘민-, 군-’ 등의 용언 역시 ‘밋-, 굿-’ 등으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체언의 경우, ‘벗’, ‘봇’ 등의 표기가 ‘ㅅ/s’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위에 쓰일 때뿐이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ㅅ’으로 표기되나 ‘ㄷ’으로 표기되나 표기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그런데 ‘밋-’, ‘굿-’과 같

은 용언의 표기가 ‘잇으며, 굿으며’ 등과 같이 매개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앞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⁹⁾ 즉 표기가 언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 발음의 변화까지도 가져와야 했다면, 용언 어간까지도 ‘잇-, 굿-’ 등으로 재구조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표기와 연관시키는 저자의 설명은 이러한 변화가 유독 체언 어간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을 해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쩌면 이상과 같은 지적은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비판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필자는 표기가 형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부터에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현대국어의 맞춤법은 ‘꽃이 핀다’를 올바른 표기로 인정하지만 ‘꽃이’라는 보수적인 표기에 이끌려 자연 발화에서 [꼬치]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표기 때문에 이미 ‘꽃’으로 바뀌었다¹⁰⁾고 할 ‘花’를 의미하는 말이 다시 ‘꽃’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자 생활이 완전히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현대 한국에서도 그러할진대, 극소수의 언중만이 문자언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조선 후기에, 음성언어가 문자언어에 이끌려 변화를 입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비판이 정당하다면, ‘ㅊ, ㅈ’ 받침을 가지던 어사가 ‘ㅅ’ 받침을 가진 것으로 변화한 것에 대한 저자의 설명도 무력해진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이 문제를 기계적인 음운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유독 체언 어간, 그것도 형태소 내부는 배제한 어말에서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형태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5세기에 비교적 엄격히 구별된 종성의 ‘ㄷ’과 ‘ㅅ’의 표기가 실제 발음상의 변별을 나타내는 것인

9) 이러한 예를 『明義錄註解』(1777)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가히 잇을지라(1:69), 잇어 부리던 신하에(상:28), 형세 굿으니(1:37)” 등. 이익섭(1992)에 따르면, 그 때까지 ‘ㄷ’ 종성의 용언은 분절을 한 일이 없어 모음 어미 앞에서 받침 ‘ㅅ’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명의록언해』에 와서 처음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ㅅ’을 등장시킨 것이라 한다. 이후의 문헌에서는 이러한 표기가 쉽게 눈에 띈다.

10) 이 변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치격의 ‘애’와 결합할 때에는 보수적인 어형을 지키려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

가의 문제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모종의 과정을 거쳐 16세기에는 변별되지 않게 되었음이 분명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종성의 ‘ㄷ’과 ‘ㅅ’이 언중의 인식에서 혼동되게 되고, 언중들은 체언의 단독형에서 구별이 안 되는 종성의 미파음을 ‘ㅅ’의 미파음으로 인식하여, ‘ㄷ’ 종성을 가지던 체언을 ‘ㅅ’ 종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변화¹¹⁾가 일어났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¹²⁾ 표기에서 보이는 ‘ㄷ’과 ‘ㅅ’의 혼동, ‘ㅅ’으로의 통일은 이러한 혼동과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고광모(1989)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데, 단지 고광모(1989)가 내세운 규칙 전도, 즉 ‘종성 ㅅ>ㄷ’의 역사적 변화가 ‘ㄷ>ㅅ’으로 재해석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¹³⁾ 어쨌든 ‘ㅈ, ㅊ(실제로는 ㅌ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성을 가지는 체언이 ‘ㅅ’ 종성으로 통일된 것도 단독형 쪽으로의 통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표기에 나타난 ‘ㄷ>ㅅ’의 교체는 형태론적 변화의 반영일 뿐,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 것이다.

2.6. 제6장은 중세국어의 ‘흐더시니’의 형태소 배열이 근대국어 단계에서 ‘흐시

-
- 11) 체언과는 달리 용언은 어간이 단독으로 쓰이는 예가 거의 없으므로 그러한 어간의 변화를 입지 않은 것이다. 체언의 비자동적인 교체형들도 모두 단독형 쪽으로 변화하였다는 근거는 고광모(1989)에서도 지적된 바이다.
- 12) 김경아(1995)는 이 문제에 대하여, 화청자들이 실제 음성산출과는 다른 형태음운론적 분석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본고의 인식과도 일면 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김경아(1995)는 이 책의 저자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ㄷ>ㅅ’의 변화에 작용한 표기의 영향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 13) 규칙 전도를 인정하는 것은 ‘종성 ㅅ>ㄷ’의 규칙을 일단 인정해야 가능한 것이고, 이는 15세기에 종성의 ‘ㅅ’과 ‘ㄷ’이 변별되었음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에는 아직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찰음 ‘ㅅ’이 미파되면서도 ‘ㄷ’의 미파음과 변별될 수 있다는 상정[이기문 (1972)에서 말하는 ‘내파적 s’]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며 그것이 16세기 들어 ‘ㄷ’의 미파음과 중화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이 익섭(1992)는 15세기에 종성의 ‘ㄷ’과 ‘ㅅ’이 변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펴면서, 15세기에도 드물지만 ‘ㄷ’과 ‘ㅅ’의 혼기 예가 있다는 점, 당시의 표기법이 자동적인 교체를 표기에 반영할 만큼 철저히 표음주의적이지는 않았다는 점, ‘ㅅ’과 ‘ㄷ’이 중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치음인 ‘ㅅ’와 설음인 ‘ㄷ’을 하나의 문자로 표기하기에는 주자가 따랐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더니'로 바꿔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전위'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조 변화의 요인으로 저자가 들고 있는 것은 '-습-'의 변화이다. "15세기에 '-습-'은 객체 존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서 어간에 밀착되어 있었으나 16세기 중반 이후로 오면서 객체 존대의 기능은 약화되고 근대국어에 와서는 상대 존대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습-'의 변화는 어간 바로 뒤에 위치하던 자리에서 그것이 밀려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상대적으로 같은 범주에 있던 '-시-'가 주체 존대로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었고, '-습-'과 함께 어울려 쓰일 경우에 기능이 약화되고 미미해지는 '-습-'에 선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 184면)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은 몇 가지를 짚어 보려 한다.

먼저, '-습-'이 객체 존대일 때는 존비 낙차가 컸으나, 상대 존대가 되면서 존비 낙차가 줄어들게 된다는 언급(176면)을 생각해 보자. 저자는 근대국어 자료에 보이는 '-습-'이 동기 간, 자식 부모 간, 부부 간에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들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자료로 삼은 근대국어 자료의 성격, 즉 인간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술은 존비의 낙차가 클 경우에는 '-습-'이 사용되지 못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어쩌면 이 문제는 이현희(1984)처럼 '-습-'의 기능을 상대 존대가 아닌 화자 겹양으로 파악한다면 피해 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대 존대'라는 관점은 국어의 특성 상 등급 논의에 빠지게 되지만, '화자 겹양'이라는 관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의 논의에서 보다 정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습-'이 존대 대상이 변화하고 존비 낙차가 줄어듦에 따라 기능이 약화되어 문장의 뒷부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인 것만은 아니나, 너무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주장대로 상대 존대 기능으로의 변화가 기능의 약화로 파악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후핵 언어인 국어에서 기능이 약한 요소가 문장의 뒷부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오히려 이 문제는 '-습-'이 상대 존대(혹은 화자 겹양이라 해도 마찬가지다)의 기능으로 바뀌면서, (문장 내의 어떤 요소

와 관련되거나 문장의 명제 내용과 관계되기보다는) 명제를 넘어선 화자 혹은 청자와 연관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문장의 뒤로 빠지게 되며, 급기야는 원래부터 화자 혹은 청자와 관련된 상대 높임법 범주를 실현하고 있었던 종결어미와 융합되어 어말어미화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요컨대 '-습-'은 '기능의 약화'로 인해 뒤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 존대 범주로 변화하면서 역시 상대 존대 범주를 실현하는 종결어미와 융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습-' 자체의 기능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가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된 '-습-'보다 앞에 오게 된다는 저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필자는 생산성이 높은 요소일수록 오히려 동사의 어간에서 멀리 떨어져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으며, 게다가 소위 객어가 없는 문장에까지 쓰임이 확대되면서 생산성을 강화한 것은 오히려 '-습-'인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시-'의 형태소 배열이 '-시더-'로 바뀌에 된 배경이 전적으로 '-습-'에 의한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요점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형태소 배열의 변화에는 '-거시-'가 '-시거-'로 바뀐 현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선어말어미 '-거-'는 '-더-'와 배타적 분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는 후대로 오면서 선어말어미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고 어말어미와 융합하여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즉 '-거-'는 점차 어말어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가 되어 용언의 어간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세국어 단계에서 '-거시-'에 두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¹⁴⁾ 이 결과 '-거시-'의 배열은 '-시거-'의 배열로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변화가 '-더시-' > '-시더-'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일종의 유추가 작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즉 '-더시-' > '-시더-'의 변화를 설명하는데에는 '-습-'의 변화와 더불어 '-거시-'의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14)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것과 존재 동사 '시-'가 결합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희(1994: 149)를 참조할 수 있다.

2.7. 제7장은 유추가 국어의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여객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 ‘-손더’형과 ‘-의계’형이 변이형태들을 더 규칙적으로 단순화시켜 가는 작용으로 ‘-손더’형이 쇠퇴해 간 것, ‘명사 + -마다’와 ‘동사 + -ㄴ다마다’의 두 가지 구조로 실현되던 조사 ‘-마다’의 통합구조가 ‘명사 + -마다’만으로 단순화된 것, ‘없-’의 어미 활용은 형용사에 일치하던 것이었는데 동사적 활용을 보이는 ‘잇-’에 유추되어 관형사형이 동사적인 활용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사 ‘오-’ 활용형이 ‘오나눌’이 동사 ‘가-’의 활용형에 유추되어 ‘오거늘’이 되었다는 것, 접미사 ‘-듭-’이 새로운 접미사 ‘-스럽-’의 유추적 신구성으로 인하여 원래 가질 수 있었던 선행 어근들을 ‘-스럽-’에 빼앗겨 버렸다는 것, ‘-흐-’ 접미사가 유추적 창조의 기능을 확대하여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 생산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 등을 모두 ‘유추’에 의한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을 들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조사 ‘-손더’형의 쇠퇴를 유추로 설명하려 한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저자는 Bynon(1977)의 논의를 빌려와 이것이 “변이형태가 난립되어 있을 때 이를 더 규칙적인 것으로 그리고 단순화시켜 가는 유추작용의 결과”(192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ynon(1977)의 논의가 적용되려면 ‘-손더’형의 조사가 ‘-의계’형 조사와 이형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동의 형태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 모두를 유추로 설명한다면, 예컨대 ‘즈믄’과 ‘干’이 경쟁하다가 ‘즈믄’이 쇠퇴하게 된 사정도 유추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며, 정작 유추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득력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필자로서는 ‘규칙적이고 단순하게 되는 것’은 유추 작용 그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¹⁵⁾ 유추 작용의 결과일 뿐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조사 ‘-마다’와 관련한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다. ‘-ㄴ다마다’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¹⁶⁾ 그것을 ‘-ㄴ다 + -마다’로 분석하는 것(‘-ㄴ다’에 대해서는

15) 사실 유추는 많은 경우에 규칙을 파괴한다. 예컨대 유추에 의해 ‘가거라’에 끌린 ‘먹거라’는 ‘동사 어간 + -아/어라’라는 명령형 활용의 규칙을 어기게 된다.

이렇다 할 성격 규정이 없다)의 위험도 위협이려니와, 그것을 두고 조사 ‘-마다’가 통합되는 범주가 단일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애초에 ‘-마다’는 용언 어간에 직접 통합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마다’는 그 통합 범위가 줄어든 것이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즉, 유추와는 반대 방향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 통합 범주가 줄어든 것이 ‘단순화’라는 용어로 파악된다고 하여, 이것을 유추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언어학적 개념을 엄밀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8. 제8장은 “차용과 국어 변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중국어가 우리말에 차용된 후, 고유어의 음운 법칙에 통화되어 한자음에 경음이 생기는 등의 독특한 한국한자음을 형성하게 되는 것, 한자 차용어의 조어 과정에서 고유어 문법의 어순을 사용한 예가 발견되는 것, 한자어가 위신어의 역할을 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하는 것, 일부의 고유어와 차용어가 혼성 복합어를 이루기도 하는 것 등이 언급되어 있다. 사실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로 “차용”을 드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차용은 단지 언어 변화의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3.1. 제9장은 소위 ‘사이시옷’과 관련된 논의이다. 그러나 “사이시옷의 기능 변화”라는 제목과는 달리, 정작 본문에서는 ‘변화’와 관련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이 유감이다. ‘사이시옷’은 낱말의 연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으로 앞 말의 말음이 유성음일 경우에 ‘내파화 개방 연접’의 관계로 결합되는 발화 현상인데, 이것에 의한 합성어는 종속적 관계가 되며, 속격만이 아니라 주격, 목적격, 서술격, 부사격의 표지로 쓰이기도 하는 광범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16) 통설적으로 중세국어의 ‘-ㄴ다마다’를 현대국어의 ‘-자마자’의 소급형으로 다루어 왔으나 이것은 ‘-ㄴ’(관형사형어미)+‘다’(형식명사)+‘마다’(보조사)의 통합체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다. 즉 “-ㄴ 것마다”的 의미를 가지는 통합체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사이시옷이 ‘주격, 목적격’ 등으로 쓰일 수 있다는 기술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주어적 속격’, ‘목적어적 속격’의 용법은 ‘사이시옷’만이 아니라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속격의 일반적인 용법이었던 것이다.¹⁷⁾

3.2. 제10장은 접미사 ‘-돕-’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돕-’계 접미사가 ‘병’의 소멸에 따라 ‘-드비-’>‘-드외-’의 변화를 입게 되자, 동사 ‘드외-’와 동음 충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돕-’이 소멸하고 ‘-답-’만 남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목은 동음 충들 회피와 같은 기제가 끼어들기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동사 ‘드외-’가 후에 ‘되-’로 재구조화된 것처럼, 접사 ‘-드외-’도 ‘-되-’가 되어 현대국어에까지 ‘참되다, 그릇되다’ 등의 용례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돕-’과 ‘-답-’이 합류를 경험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¹⁸⁾ 또한 그것이 원래 추상적인 성격을 띠는 어근만을 어기로 삼았다가 후대로 오면서 그 기능을 ‘-스럽-’에 넘겨 주고, 구체적인 성격을 띠는 명사를 선행어로 취하게 되었다¹⁹⁾는 지적도 만족스럽지는 않다. 현대 국어에서 ‘-답-’은 거의 모든 어기를 취하는 지극히 생산적인 접미사²⁰⁾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3.3. 제11장은 접미사 ‘-흐-’의 변화를 다룬다. 먼저 저자는 상태 동사 전용 요소로 쓰이는 경우의 ‘-흐-’와 동작 동사 전용 요소로 쓰이는 경우의 ‘-흐-’가 같은 요소인가를 고민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저자가 취한 방법은 그것의 분포를 고려하는 일이다. ‘-흐-’는 명사, 본래부사, 파생부사, 불구어근과 동사의

17) 저자가 목적어적 속격이라고 언급한 예문[262면 (61)~(63)]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예문 (61)의 “……如來人 우 업스신 慈悲人 그르치샤물 恭敬 흐수와……”의 ‘慈悲’는 목적어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자비로운 가르침” 정도로 이해되어 ‘그르치삼’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온당할 것이다. (62), (63)의 “覺明人 불기 아는 性”과 “一切人 어루 불境”도 이와 마찬가지다.

18)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돕-’과 ‘-답-’이 과연 동일한 요소로 취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19) 저자는 [土추상성] 이외에도 [土형상성]의 자질을 들고 있으나 저자의 해설을 들어 보면, 이는 [土추상성]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20) 이러한 극도의 생산성이 어기를 통사적인 구에까지 확장하게 되는 결과를 놓았고, ‘-답-’을 소위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로 불리우게 한 원인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부동사형 '-아/어'에 붙을 수 있는데 이는 '-흐-'가 상태 동사 전용 요소로 사용될 때와 동작 동사 전용 요소로 사용될 때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저자는 '-흐-'에 의한 파생어가 상태 동사인가 동작 동사인가는 선행 어기의 성격에 달려 있는 것이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²¹⁾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독 '어간 + -아/어 + -흐-' 구성의 '-흐-'만이 형태 구조 및 기능상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특히 색채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에 결합되는 '-흐-' 접미사의 결합 구조가 특이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태 동사 '프르-'에 '-아/어'가 연결되고, '-흐-'가 접미된 형태 '프라흐-'(사실은 '파라흐-'²²⁾)는 후대로 오면서 '프랑-'(사실은 '파랑-')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다른 '-흐-'의 변이형이 수의적인 반면, 색채 형용사일 경우에는 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렇-~그러흐-'의 변이가 현대에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흐-'의 존재가 형태상으로 또한 기능상으로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색채 형용사의 경우에는 '-흐-'의 기능이 모호하다. 즉, '프르-, 누르-'는 그대로 완벽한 서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흐-'는 줄어질 수 있다.

저자의 논의를 정리하고 음미해 보면, 결국 다양한 접사 '-흐-' 가운데 '전용'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그 형태를 유지하지만, 전용의 기능이 뚜렷하지 못한 것은 형태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지의 주장은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저자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논리상의 허점들은 지적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저자는 '어간--아/어+-흐-' 유형에서 상태 동사 전용 요소인 '-흐-'는 형태의

21) 저자는 '어간+ -아/어+ -흐-' 구성에서, '-아/어'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생접사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이 파생이나 합성이나 하는 문제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이현희(1985)는 이 경우의 '어간+ -아/어'를 형용사의 부동사형으로 보고 이 구성을 합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22) 이현희(1985)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프르-+ -아 흐-'는 '프라흐-'가 아니라 '파라흐-'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자가 제시한 '불가프라흐-'의 예는 예외에 속한다.

변화를 겪고 동작 동사 전용 요소인 '-흐-'는 형태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중세 국어 단계에서는 '어감의 강조' 정도의 뉘앙스 차이만을 가져왔을 뿐, 적극적인 '전용'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도라보아흐'- 등은 '프라흐'-(사실은 '파라흐')- 등과 동궤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도라보아흐'-류의 어사들도 형태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저자는 '프라흐'-(사실은 '파라흐')-류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동작 동사 경우의 예로 '어려워흐', '가려워흐'- 등의 예를 들고 이들이 변화가 없음을 밀하고 있는데(303면), 이 역시 잘못이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된 '도라보아흐'-류와는 달리, 형용사를 동사로 전용시킨 경우의 예이며, 더욱이 이렇게 형용사에 '-아/어 + -흐'-를 결합하여 동사로 사용하는 용법은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자체도 적당하지 않은 데다가 인용한 예도 적절하지 않아 논의에서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프라흐'-(사실은 '파라흐')-류의 어사들이 '프랑-'(사실은 '파랑')- 형으로 바뀌고, '도라보아흐'-류는 현대국어에서 '(내가) 보아하니' 정도의 예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린 것이 사실인데, 이들의 '-아/어 흐'-가 '전용'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겪었다고 본다면 저자의 기본적인 인식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흐'-의 적극적인 기능이 인정되는 '그러흐', '이러흐'-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대국어 단계에 오면, (적어도 구어에서는) '그렇-', '이렇-'으로 고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저자의 설명이 가지는 설득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물론 그렇다 해도 '-흐'-가 '-흐'-으로 줄어드는 변화는, 그 기능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설명은 가능할 것이다.

3.4. 제12장은 명사형 어미 '-기'의 변화를 다룬다. 15세기에 주로 '-(으)ㅁ'에 의해서 수행되던 명사화의 기능이 '-기'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디'와 '-기'가 15세기에 가졌던 문법적인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디'는 내포문을 명사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결합된 '乞食호'

디' 등의 어형은 단독으로 두었을 때 자립 형식의 낱말이 될 수 없어서 반드시 문장 속에서만 존립이 가능하나, '-기'가 붙은 '布施하기' 같은 문장 밖에서도 명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굴절접사를 통합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파생명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저자는 '-기'가 거의 모든 용언의 어간에 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세기에 이미 굴절접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16세기에 오면 '-기'의 명사화 기능은 문장 단위에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완전히 굴절형태소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며, 18세기에 오면 현대국어의 직관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곳에까지 '-기'가 쓰이게 된다고 한다.

이 장에서의 저자의 논의는 일견 매우 정연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실제 저자가 다루고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적지 않은 약점이 노출된다. 예를 들어 저자는 '-기'가 어떤 특정의 어간에만 붙지 않고 거의 모든 용언 어간에 붙을 수 있음을 들어 이것이 굴절형태소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았지만, 실제로 15세기에 '-기'가 붙은 명사형(혹은 파생명사)의 용례는 이것에 어떤 범주를 줄 만큼 충분히 많이 찾아지지 않는 형편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의 해석 방법인데, 우리는 여기서 저자가 명료한 논의를 위해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저자가 사용한 다음 예를 보자.

- (17) ㄴ. 빙토다 네 계으른 양 씨기 말며(<翻朴> 上 50)
- ㄷ. 거르며 불기를 안서코 양서히 헌(<小諺> 5: 96)
- (19) ㄷ. 낭반이 글호기를 브즈러니 헌면(<正俗諺> 21)
- (22) ㄱ. 네 고을 원이 불둘리기 잘 헌눈다(<東國新坤> 1:51) (328~329면)

(17), (19)은 저자가 16세기 국어에서 '-기'가 파생접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예 중의 하나이며,²³⁾ (19)은 문장의 명사화 기능, 즉 굴절접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예 가운데 하나이다. (22)은 17세

23) 사실 저자는 343면에서 (17)의 예를 한 번 더 취급하면서, '-기'가 굴절성을 얻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관찰이라 생각되는데, 앞의 논의와 일관되지 못한 것이 흡이다.

기에 '-기'가 문장의 명사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17)의 '쁘기', '뚫기'를 파생명사로 인정할 수 없는데, (17ㄴ)의 경우 '게으른 양'은 동사 '쁘-'의 목적어임이 분명하고, (17ㄷ)의 경우에도 '-기'는 '거르며 뚫-' 전체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자는 (19ㄷ)와 (22ㄱ)의 경우를 각각 [[냥반이 글호-]기]와 [[네 고을 원이 물둘리]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오히려 '글호기', '물둘리기'를, 그 내부 요소가 외부 요소와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는 고도(孤島)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미흡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가 명사형 어미로서 굴절접사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였음을 말하는 것에서 그쳐, 현대국어에서 여전히 파생접사와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기'의 존재(예컨대 '달리기', '걷기', '놀기')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다.²⁴⁾

3.5. 제13장은 선어말어미 '-습-'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6.에서 이미 다룬 바 있으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제14장은 의문법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국어 형태 변화”라는 거리가 먼 다분히 통사론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15세기의 의문법의 체계와 그 변화가 기술·설명되고 있는데, 의문법의 변화와 관련된 양상은 이미 2.2.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24) '-기'와 '-(으)ㅁ'의 기능 분포는 현대국어에서도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양자 모두 파생 접사와 굴절접사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도 어색한 자리에 '-기'가 쓰였다면, '-기'의 세력 확장을 이야기한 예를 잠시 가져와 보자.

(29) ㄴ. 처엄의 良役을 괴로와 헤야 살기를 어드려 hẳn다가(御製常訓 16)

ㄷ. 상이 죽기를 넘흐야 넓오더(種德 上 4)(334면)

현대국어라면 ‘살기’ 대신에 ‘삶’, ‘죽기’ 대신에 ‘죽음’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는 설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자리가 용언의 명사형이 와야 하는 곳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완전한 파생명사가 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즉 현대국어에서 '-(으)ㅁ'이 쓰인다 해도 이것은 명사형 어미 '-(으)ㅁ'이 아니라 파생접사 '-(으)ㅁ'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29)에 사용된 '-기'는 당시로서는 파생접사 '-기'로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바, 마치 '-기'는 불완전한 명사형 어미이고, '-(으)ㅁ'은 완전한 명사형 어미인데, '-기'가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현대국어에서도 침범할 수 없는 '-(으)ㅁ'의 영역 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는 저자의 설명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생각한다.

는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상의 난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저자는 예컨대 15세기의 ‘다’ 의문법이 ‘직접의문’에만 쓰인다고 기술하면서, ‘직접의문’을 ‘2인칭 대명사가 주어가 되는 의문문, 즉 청자가 주어가 되는 의문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학의 일반 개념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직접의문’은 ‘화자와 청자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직접화법의 의문’(이현희 1982 참조)을 지시하는, ‘간접의문’에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적 물음”이라는 말이 청자에게 직접, 청자가 주어가 되는 사태를 묻는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느다’ 의문문은 실제로 ‘직접의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자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피해야 할 용어 선택이 아니었나 한다.

3.6. 제15장은 “단어의 범주 변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저자가 이 장에서 보인 주된 관심은, 수관형사가 과연 관형사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수관형사는 관형사 범주에 넣을 필요가 없고, 수사의 관형어적 용법으로 처리함이 온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저자는 관형사 형성의 과정을 검토한다. 관형사 형성의 첫째 유형은 체언이나 용언이 관형어적 쓰임만을 남긴 채 소멸해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는 원래 명사였으나 체언 앞에 와서 관형어적 기능을 하는 용법만 남고 명사적인 용법이 사라짐으로써 관형사가 된 것이다. 관형사 유형의 둘째 유형은 어떤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에 의미 분화를 일으켜서 다른 의미를 가진 동음 형태가 되고, 급기야 형태 변화까지 수반하게 됨으로써 관형사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와-’의 활용형인 ‘원’, ‘묻-’의 활용형인 ‘모돈’을 예로 들 수 있다. 관형사 형성의 셋째 유형은 어떤 체언이나 용언이 관형어로 쓰일 때에 형태 변화가 수반되어 의미가 유지되더라도 형식을 서로 연관시킬 수 없는 경우이다. ‘집, 물, 네’ 등에서 나온 ‘짓, 뜻, 넷’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저자의 입장에서는, 수관형사는 이러한 형성 과정 중 어느 한 유형도 거쳤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관형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통상의 범주론이, 공시적인 관점에서 해당 범주의 원형적(prototypical)인 모

습을 살피는 과정을 밟는 것과는 달리, 통시적인 범주 형성의 과정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의미상으로는, 수사의 범주를 배당받는 '하나 둘, 셋, 넷'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한, 두, 세, 네' 등이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것이 정당한 자리매김이라는 생각 역시 동의할 수 있는 면이 많다. 범주론은 성격상, 어느 한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고, 체계가 가지는 장단점 정도로 그 가치가 판단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수관형사처럼 주변적인 성격을 가지는 실체들을 다룬다고 했을 때(수관형사는 기능면에서는 관형사의 성격을 띠지만, 의미면에서는 수사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이 논의가 가지는 논리가 얼마나 정연한가 하는 문제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저자의 논리를 개운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자가 관형사의 형성 유형이라고 제시한 것이 우리가 관형사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형성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은 보통 관형사로 취급되고 있는 것인데, 저자가 제시한 관형사 형성 유형 세 가지 중의 어느 것에도 들지 않는다. '현'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동사 '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이 관형사로서 처리된다면, 거기에는 통시적인 형성 과정을 넘어서서, 그것이 관형사로 처리될 만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관형사의 형성 유형에는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수관형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를 굳이 관형사라고 주장한다면,²⁵⁾ 또 다른 관형사 형성 과정을 설정할 수 있는 순환론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4.

이상에서 다소 장황하게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를 각 장별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저자의 애정의 산물에 대하여 조

25) 저자는 수관형사가 수사와 형태를 달리 하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관형어적 용법을 가질 때에 말음이 떨어지는 현상을 중시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고영근·남기심(1985)에서 이러한 관점을 볼 수 있다.

잡하고 서투른 비판만을 일삼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 저서가 가지는 장점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테니까, 하는 변명을 위안으로 삼을 뿐이다.

이 책의 검토를 통해 필자가 얻은 교훈은, 문법 형태를 다루는 자리에서는 문제의 요소에 대한 엄밀한 형태소 분석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저자의 '-느다'나 '드' 관계 논의(2.2.), '-느다마다' 관계 논의(2.7.) 등이 가지는 약점들이, 정확한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이 시도되었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다. 엄밀한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형태에 대한 지위를 확실히 한 후에야, 비로소 믿음직한 기술과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글을 맺으며 필자는 과연 '원리'가 언어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시 생각해 본다. '원리'는 기술만을 위한 '규칙'과는 달리 언어의 변화에 대한 설명적 충족성을 요구한다. 저자가 제시한 '음운 소실, 동음 형태 충돌, 축약……' 등은 언어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이 설명적 충족성을 만족시키는 '원리'가 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원리'는 기본적으로 명제로 서술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사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광모(1989), <체언 끝의 변화 ㄷ>ㅅ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언어학』 11.
- 곽충구(1984),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1.
- 김경아(1995),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 『관악어문연구』 20.
- 김완진(1975), <번역박통사와 박통사언해의 비교 연구>, 『동양학』 5.
- 안명철(1990), <국어의 융합현상>, 『국어국문학』 103.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현희(1982),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 이현희(1984), <근대국어 경어법의 몇 문제>, 『한신어문연구』 1.
- 이현희(1985), <'한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 '누러한다'류와 '엇더한다'류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 이현희(194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동훈(1996),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정재영(1996), 『의존명사 '드'의 문법화』, 태학사.
- Bynon, Th.(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